



돼지 도체등급개정 방향과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사양관리



윤영탁 부장
(축산물등급판정소)

1992년 7월 축협 중앙회 서울 공판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돼지 도체에 대한 등급 판정은 96년에는 전국 도축 두수의 56.7%인 6,117천 두를 판정하여 명실공히 생산 및 유통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돼지고기 수입자유화의 시작인 7월을 맞이하여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게 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축시 도체의 2분할이 이루어 지지않고, 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 질보다는 양(수율) 위주로 이루어져 지방이 거의 없는 도체가 높은 가격을 받고, 소매 단계에서 냉장육 유통이 전무했었으나 만 5년이 지난 지금은 2분할은 물론 질을 중시해 적정한 피하지방을 인정하는 거래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 양돈가 및 유통업자의 브랜드화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견인차가 되었고, 백화점 및 축산물 유통 직매장을 중심으로 한 냉장육 유통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품질에 대한 식별 능력 향상과 함께 좋아지고 있음이 피부로 감지되고 있다.

금상첨화 격으로 연초에 알려진 대만의 구제역 발생 소식은 대일 돈육 수출의 호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기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돼지의 사양과 개량 그리고 출하 중량의 규격화에 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도체 등급 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고 시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1. 현황

(가) 생산 및 소비

'96년의 돼지 사육 두수는 650만두로 90년의 450만두에 비해 200만두가 증가되었는데 비해 사육 가구수는 1만호가 줄어든 33천 호로 호당 사육두수는 34두에서 196두로 나타나 양돈업이 점차 규모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축 두수도 860만두에서 1,080만두로 증가되었다.

돼지가격도 90년 이후 약간의 가격적 변동은 있었지만 좋은 가격을 형성해 왔고 출하 체중도 '90년보다 10kg이 증가되어 '96년 말에는 100kg이 되었다.

한편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량도 늘어 '90년에 11.8kg이었던 것이 '96년에는 15.4kg증가되었다.

구분	90년(A)	96년(B)	B/A(%)
사육가구	133,428호	33,276	0.24
사육두수	4,528,008두	6,515,773	1.44
도축두수	8,604,509두	10,793,502	1.25
산지가격(100kg)	164,400원	171,000	1.04
출하중량	90kg	100	1.11
돈육소비량	11.8kg	15.3	1.30

(나) 등급 판정

'92년 7월부터 시작한 등급 판정은 매년 판정 두수가 늘어나 '96년에는 전국 도축 두수의 56.7%에 해당하는 610만 두를 판정하였고 올해에는 650만 두를 판정할 계획이나 5월 말 현재 281만 두를 판정하여 9월부터 시작되는 수출 돼지 도체에 대해 등급 판정을 하면 판정량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별 출현 현황을 보면 '96년 말 현재 A등급 7.6%, B등급 32.6%, C등급 38.7%, D등급 14.7%, E등급 6.4%로 A등급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나 암돼지의 경우 13.7%를 나타내고 있다.

등급별 경락 단가를 축협 서울 공판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등급간 일정한 가격차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C등급 경락 단가를 지수 1.00으로 했을 경우 A등급 1.16, B등급 1.09, D등급 0.91, E등급 0.56을 나타내 C등급 경락 단가가 2,600원일 경우 A등급 3,016원, B등급 2,834원, D등급 2,366원의 가격차가 나타나게 되어 개량과 사양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고 있다.

-. 등급판정 두수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도축(A)	9,679천두	9,639	10,178	10,794	
판정(B)	1,807천두	2,761	4,999	6,117	6,500
B/A	18.7%	28.6	49.1	56.7	62.0

-. 등급별 출현현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93년	5.6%	30.8	39.9	18.6	5.1
94년	5.2	28.4	40.7	19.7	6.1
95년	6.3	30.4	40.1	16.8	6.4
96년	7.6	32.6	38.7	14.7	6.4

-. 등급별 경락가격(축협 서울공판장)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경락	지수	경락	지수	경락	지수	경락	지수	경락	지수
93년	2504	1.16	2375	1.10	2159	1.00	1984	0.92	1389	0.64
94년	2771	1.16	2609	1.09	2399	1.00	2228	0.93	1526	0.64
95년	2720	1.18	2546	1.10	2313	1.00	2141	0.93	1431	0.62
96년	3012	1.16	2830	1.09	2593	1.00	2372	0.91	1455	0.56

('96.축협 서울 공판장)

2. 개정 사유

(가) 출하 체중의 증가

출하 체중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현행 등급 기준은 A등급 도체 중량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출업체의 경우 A등급을 받은 도체라 하더라도 수출 규격에 미달되어 등급별 가격 정산으로 인한 손실 등을 들어 등급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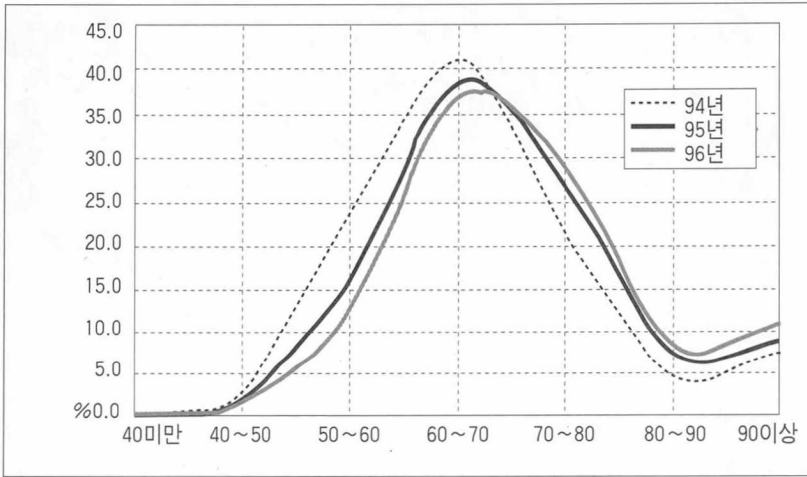
현행 등급 기준은 등급 판정의 초기 단계에서 등급이 현실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양돈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 그러나 지금은 등급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출하 체중이 증가되어 도체 중량의 평균(축협 서울 공판장. E등급 제외)이 68.5+9.0kg(생시 체중 90~115kg) 나타나고 있다.

-. 출하 체중이 최근 6년간 10kg증가 되었음

구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생체	90kg	92	93	95	96	98	100

(자료 : 축협 조사월보, 97. 2)

-. 도체 중량 70kg미만의 출현율은 매년 줄어 들고 70kg 이상은 증가되고 있음.



(축협 서울 공판장)

- * 도체 중량 70kg이하는 감소한데 비해 70kg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94년 66.2대 33.8에서 96년에는 51.9 대 48.1로 변함.
- * 60~80kg범위에서 66%(96년)가 출하됨.

(단위 : %)

구분	40미만	40~50	50~60	60~70	70~80	80~90	90이상	전체(두)
94년	0.1	2.7	22.6	40.8	21.4	4.8	7.5	799,862
95년	0.4	2.2	16.0	38.6	26.9	7.3	8.6	808,841
96년	0.4	1.7	12.8	37	29	8.3	10.8	799,956

(나) 구매 기호성의 변화

정육 판매 업체의 구매 선호도가 종전에는 육량 중시쪽이었으나 점차 소비자의 기호성 중시로 전환되면서 도체 중량에 적합한 피하지방이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돼지의 비육 정도를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60~80kg의 범위에서 등지방 두께가 8~19mm정도 있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락단가(1996년 추공)

구분	압	수	거세
60~80kg 8~19mm	2,902	2,693	2,818
55~80kg 6~16mm	2,874	2,662	2,767

(다) 양돈 관련 업계의 요구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는 등급 기준 개정

(안) 마련에 앞서 생산자 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결과 대부분이 생체 중량이 100~120kg범위에 상위 등급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피 지육률을 67%로 했을 경우 도체 중량은 67~80kg(탕박 74~87kg)정도가 되는데 도매시장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체중대에서도 출하 빈도가 높고 좋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품질 개선 자금의 지원 제도 개선

정부가 규격돈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품질 개선 지원 자금의 지원 제도가 개선되어 '97년 9월부터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규격돈의 개념을 생체중량 105~120kg수준의 돼지, 돼지고기내 향생, 항균제등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돼지, 슛돼지의 경우 거세한 돼지로 정의하고 있어 슛돼지의 거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합당한 기준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 등급별 지원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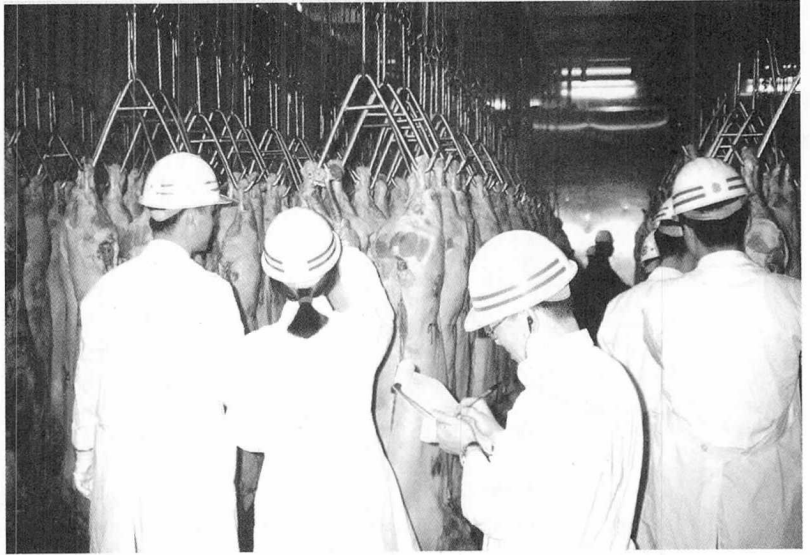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소요액
97년	8000원	6000원	4000원	167억원
98년	7000원	5000원		135억원
99년	5000원	3000원		107억원

3. 개정 방향

(가) 도체중량

도체 중량은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범위에서

상위등급(A, B 등급)을 설정하되 수출 규격돈에 적합한 중량 범위와 도매시장의 거래가격을 참고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따라서 현행의 A, B 등급의 하한 중량 범위를 9kg정도 높이고 상한 체중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중량의 규격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박피)A등급 55kg 이상 81kg미만 → (개정) 64kg 이상 81kg미만

B등급 51kg 이상 84kg미만 → 60kg 이상 84kg미만

에 더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본다.

(나) 등지방 두께

등지방 두께는 구매 경향(육질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등지방이 있는 도체를 선호)과 체중 증가에 따른 등지방의 증가율이 고려되어야 하며 거세돈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과도한 지방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박피)A등급 6mm 이상 16mm미만 →

(개정)9mm 이상 21mm미만

B등급 4mm 이상 20kg미만 → 7mm 이상 24kg미만

(다) 탕박도체

탕박 도체의 경우 단축을 자르지 않는 관행을 존중해 족을 포함한 중량에 맞춰 기준을 조성하고 탕박 도체 등지방 두께는 5mm를 박피 등지방

4.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사양 관리

지금까지 현황 및 개정 사유 개정 방향 등을 알아 보았다.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단계별 사양 관리라 하겠다. 그러나 돼지 도축시 도체의 2분할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지방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지방은 아무리 체중 범위가 상위 등급 범위라 하더라도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슛돼지의 비 거세로 인한 이점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고 대일 수출 원료돈 확보를 위해서도 거세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고기내 항생제 잔류 물질은 비육 후기사료 급여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규격돈의 개념을 준수하여 사양 관리하는 것이 좋은 등급을 받기위한 길이라 하겠다.

